

마귀를 이긴 자라야 구세주가 되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신이라는 걸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모르죠? 인간의 역사를 펼쳐보아도 인간은 전부 다 아담과 헤와의 자식이죠? 아담과 헤와가 원래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보아서도 분명히 아담과 헤와의 피가 오늘날 모든 인간들의 몸 속에 흐르고 있는 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아담과 헤와의 후손인 인간들의 생명인 피가 아담과 헤와의 피인 고로 아담과 헤와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틀림없는 하나님의 피고 하나님의 신이 틀림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이 곧 하나님의 신이요, 하나님의 신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바로 이제 하나님 상태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이 정한 이치죠?

하나님의 신이라는 증거를 보여줬다

오늘날 6천년 만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와서 지금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펼치고 있고요? 그러면서 틀림없는 구세주요, 틀림없는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죠? 이 사람이 말로만 세계 공산주의를 없앤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떨어지면서 세계 공산주의가 없어졌죠? 공산주의자가 그 당시에 40억만 명이있었어. 40억만 명 속에 있는 공산주의 이념을 구세주가 분신으로 날아가서 공산주의자 속에 소옥 들어가 공산주의 이념을 뿌리째 뽑아서 제거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없어졌다고 말해야 이게 이치가 맞는 말이지? 공산주의란 이념이요 사상이기 때문에 이 이념을 완전히 뿌리째 뽑아서 제거하기 전에는 공산주의 사상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하루저녁에 공산주의 이념을 뿌리째 뽑아서 제거해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하루저녁 지나서 는 나는 공산주의 싫다고 하게 되니까 세계공산국가가 폭망되고 말았죠?

그러므로 이것이 사람 마음 속에 심어

져 있는 공산주의 사상인 이념을 뿌리째 뽑아서 제거했다는 증거죠? 그걸 제거하지 않고서는 공산주의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공산주의를 없앤다고 하는 말을 할 때에 3분지 1이상의 교인들이 발뽕 일어나서 나가버렸죠? 공산주의를 어떻게 지 까지 게 없애버리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예에 보는 중에 발뽕 일어서서 나갔던 거죠?

공산주의 없앤 후 다시 찾아온 사람들

그러나 공산주의가 90년대에 없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몰려들기 시작했던 거죠? 조희성이라는 사람이 공산주의를 없앤다고 한 말이 거짓된 말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공산주의 없어지는 걸 보니까 조희성이라는 사람이 공산주의를 없앤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이 느껴지니까 다시 제단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던 거죠?

공산주의만 없앤 게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에 태풍을 못 불어오게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 해마다 오는 여름장마비를 못 오게 한다. 그랬죠? 우리나라 계속해서 풍년들게 한다. 그랬죠? 해마다 불어오는 태풍을 못 불어오게 한다고 그랬죠? 해마다 25년씩 불어오는 그 태풍을 못 불어오게 한다는 말이 그게 사실로 들려요? 이제 와서 사실로 들려지지. 왜 그러나 하면 25년간 계속해서 태풍 못 불어오게 하니까 사실로 이제 와서는 들려지는 거죠? 그러나 처음 들었을 때에는 사실로 들릴 수가 없는 거죠?

해마다 여름장마를 못 지게 한다고 또 그랬죠? 계속해서 여름장마가 해마다 지는데 여름장마가 오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 그게 믿어져요? 지금은 믿어지지. 21년간 여름장마가 안 지고 21년간 태풍이 못 불어오게 하고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고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지금은 팔을 가지고 매주 쏜다고 그레도 믿게 되어 있어. 그렇죠?

누가 이 사람을 가짜 구세주라고 할지라도 진짜 구세주라고 믿어지죠? 그 풍운



구세주 조희성

조화를 마음대로 하고 우주를 유지시켜 마음대로 움직이는 걸 볼 때에 진짜 구세주가 틀림이 없는 거죠? 진짜 구세주라는 건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하는 자요, 자기 마음먹은 대로 마음대로 우주를 움직이는 자가 바로 구세주인 거죠? 그러므로 구세주는 전지전능자이죠?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가 구세주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 속에 있는 선악과인 나라는 의식을 그대로 완전히 뿌리째 뽑아서 제거한 다음에 마귀 속에 갇혀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나라는 의식으로 알게 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구세주인 거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은 바로 하나님이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은 바로 하나님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죽지 않게 하는, 죽지 않는 하나님을 만드는 이 능력이 구세주밖에 그 누구도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마귀의 증은 죽을 수밖에 없다

오늘날 성경 상 구원론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성경에는 성경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되는 고로 하나님이 되어야 구원이, 사람은 구원이 없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가짜 구세주가 나와서 사람이 전부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말했던 거죠? 그러

나 한 명도 구원 얻은 자가 없는 걸 보아서 가짜 구세주가 틀림없죠? 영생을 줘야 구세주이지, 영생을 못 주면 구세주가 아닌 고로 영생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 안애나 영생이 있는 거지, 사람 속에는 영생이 없는 거죠? 사람이란 것은 마귀의 종 하나님인 고로 마귀 종 하나님은 영생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마귀 종 하나님은 죽게 되어 있고요? 마귀가 나라는 주체의식이라는 사실도 이 세상 종교들이 모르죠? 이 세상 종교들은 나라는 의식이 마귀요, 마귀의 종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성경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보아도 분명히 나라는 의식이 마귀요, 인간의 몸 속에는 생명인 하나님의 신이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네, 마귀 종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마귀 종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어디서 들어봤어? 그걸 아는 사람은 구세주밖에 없는 거야.

6,000년 만에 이슬성신을 개발한 후 사람 몸을 입고 내려온 것이다

하나님의 신으로서 마귀와 더불어 6천 년간을 싸우며 마귀의 공격을 6천 년간을 피해 다니다가 하나님이 구원하는 감추었던 만나인 이슬성신을 개발함으로써 그 개발한 이슬성신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난 거죠? 이 세상에 나

타나서 감로이슬성신을 내리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영생을 주는 삼신신의 불로초라는 걸 몰랐죠? 감로가 삼신신의 불로초라고 격암유록에 써 있는 것을 보아서 알게 된 거죠? 삼신신의 불로초가 이슬성신이고, 감로이슬성신이 사망의 신을 죽이는 독약이죠? 그걸 먹으면 마귀가 죽는 거죠? 감로이슬성신을 내리면 마귀가 죽는 거죠? 감로이슬성신을 내리면 마귀 신이 죽는 고로 사람들이 사람의 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되고 마는 거죠? 사람들은 전부 마귀를 이긴 하나님이 된 고로 사망을 이긴 하나님이 된 고로 영생활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영생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 아니고 승리의 하나님이 고로 강한 하나님이 고로 강한 하나님이 되어서 바로 영원무궁토록 영생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일찍이 말씀을 드렸던 거죠?

강자가 되어야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생이라는 것은 강자에게 영생이 있지, 약자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그랬죠? 마귀를 이기고 마귀를 죽이는 능력이 있는 승리의 하나님의 신이 영생하는 거지, 마귀에게 지는 하나님의 신은 영생활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것을 기독교에서 알아? 기독교에서 이러한 구원론을 모르고 있는 거죠? 성경만 끼고 다녔지, 성경 말씀의 진의를 알지 못하는 거죠? 오늘날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우리 승리제단이지? 하나님이 인간들을 구원하는, 마귀의 종이 되어가고 있는 하나님인 사람들을 전부 완전히 본래 상태의 하나님으로 바꿔놓는 작업이 하나님의 일이지? 그런 작업을 하려면 인간 속에 마귀 신을 죽여서 제거해야 돼요?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신과 마귀 신이 있는데, 주체영으로 되어가지고 있는 마귀 신을 죽여서 없애버리면 하나님 신 전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오늘날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우리 승리제단이지? 하나님이 인간들을 구원하는, 마귀의 종이 되어가고 있는 하나님인 사람들을 전부 완전히 본래 상태의 하나님으로 바꿔놓는 작업이 하나님의 일이지? 그런 작업을 하려면 인간 속에 마귀 신을 죽여서 제거해야 돼요?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신과 마귀 신이 있는데, 주체영으로 되어가지고 있는 마귀 신을 죽여서 없애버리면 하나님 신 전부 하나님이 되는 거죠?

마귀를 죽이는 그 독약이 바로 감로이

슬성신이에요. 구세주가 예에 볼 적마다 항상 그 구세주가 감로이슬성신을 내리고 있는 거죠? 감로이슬성신이 사람 탈구명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성불시킨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모든 중생들 속에 있는 마귀 신을 완전히 죽여서 없애 버려야 중생들이 성불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단에 설 적마다 이 사람의 분신인 감로이슬성신이 내리죠? 폭포수처럼 내리고 있는데,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나 사진을 찍으면 찍혀 나오죠? 감로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감로를 안 받았으면 옛날 못된 성질, 못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약한 마음이 없어지고 선한 마음이 이루어지는 것은 감로이슬성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완전히 약한 영을 제거하는 이슬성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감로이슬성신을 내리는 자가 구세주요, 생미륵불이요, 정도령이라는 사실이 격암유록, 성경, 불경에 기록되어 있죠?

마귀를 이긴자가 구세주다

그러므로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성경 말이요, 성경 말은 영적 말인 고로 부활함을 입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다시 부활해서 산다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마귀 속에 갇혀 있는 상태, 영적 무덤 속에 갇혀 있던 고로 죽은 상태와 마찬가지로 안 죽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무덤 속에 갇혀 있던 하나님의 영이 석방되어 나와서 영적 무덤을 파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라는 주체의식의 자리에 있는 마귀의 영을 죽여버리고 없애버린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나라는 의식의 자리에 좌정하게 되니까 바로 하나님으로 회복된 거죠?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영이 이제 승리자가 되고 만 거죠? 마귀를 이긴 승리자가 온 세상 만민들을 살릴 수 있는 구세주가 되는 거죠?*

2001년 12월 17일 설교 말씀 중에서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참성경

(10) 야곱의 임종

야곱은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쉬 죽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언젠가 조상의 뼈가 묻힌 땅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야곱은 열두 아들을 머리맡에 불러 놓고는 한 사람씩 축복을 해 준 다음에 얼마 동안 살다가 147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야곱의 죽음을 70일 동안이나 곡을 하며 슬퍼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생전에 말씀한 대로 가나안 땅에 아버지의 시체를 안장(安葬)하기 위해 애굽 왕가의 신하, 그리고 야곱의 친족들을 거느리고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먼 길을 갈 수 없는 어린이들과 양과 소만이 고센에 남고 전차와 기병들의 호위를 받은 그 행렬은 참으로 호화스러웠습니다.

요셉이 19세 때 가나안 도단 구덩이에서 아라비아 상인의 구출함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산 지 37년 만에 아버지 야곱의 임종을 보았습니다. 이제 56세의 요셉은 조상의 선영이 있는 가나안을 찾은 것입니다. 애덤에서 마중 나온 큰아버지 에서를 만난 요셉은 그 자신이

탄 마차에 큰아버지를 동승하게 하였으며, 그 마차에는 이미 애굽의 고센에서 출발하여 올 때부터 요셉의 배려로 큰형 르우벤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해 동편을 타고 마차가 올라갈 때, 문득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외삼촌 리반 집(하란)에서 아람도주하여 필사적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내려오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마차에 동승한 큰아버지 에서에 여섯 살의 나이에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큰아버지 에서는 말하기를, “바로 그 당시에 아우 야곱이 길르앗산지 남쪽 고틀머리 압복강변에서 그의 종들을 나에게 보내 안부를 전하자, 나는 일시에 노여움이 치밀어 올라와 서둘러 휘하에 장정 400여 명을 이끌고 지금 마차가 달리고 있는 이 길을 타고 올라갔었지. 그런데 막상 제수씨와 고물고물한 조카들을 마주하자 동생에 대한 복수심이 사그라지고 말았네!”라고 하였습니다.

옆에서 요셉과 큰아버지 에서의 대화를 들던 르우벤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르우벤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우 요셉이 여섯 살 때의 일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거늘, 우리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도단 구덩이에 빠뜨렸을 때

에 그 당시 요셉의 나이는 열아홉이 아닌 가!’ 하면서, ‘요셉이 미워하여 우리 형제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앙갚음하면 어찌하나?’ 하고 안절부절못하였습니다.

마침내 야곱의 장례행렬이 사해 동편을 타고 올라와서는 요단강 동편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장례행렬에는 야곱의 열두 아들의 온 집안 사람들과 애굽의 고관대작들 그리고 바로 궁전의 원로와 지방 호족의 원로들이 함께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병거와 기병이 호위하여 따랐기 때문에, 요단강 나루터에서 작은 배를 타고 건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나무를 베어 임시로 다리를 놓아야 했으며, 또한 나이 많은 원로들의 휴식도 겸해서 대략 7일 정도 **아닷 타작마당**에서 유숙하였습니다.

1 (아닷의 타작 마당)의 위치를 추정하면, 사해(소금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요단강 하류의 동편임을 알 수 있다. 아닷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 평지가 된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받들어 가나안땅 헤브론 근교 마므레 앞 막벨라



호화스런 야곱의 장례행렬

가 안치되어 있는 선영의 묘실이다.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애굽의 고센에서 출발한 야곱의 상여행렬이 중간에 가데스에서 브엘세바를 경유하는 지름길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사해 동편을 타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한 점이다.

아마도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이 147세의 일기로 애굽에서 임종할 당시에, 쌍둥이 에서는 사해 남쪽 애덤에서 생존하고 있었음에 분명하다. 아버지 야곱이 180세의 수한을 누리 것을 감동한 사해를 건너고 애굽의 고센에서 가나안의 헤브론을 향했다. 마므레의 굴은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애덤을 다스리는 에서는 동생 야곱의

니다.

아닷에 잠시 머물 동안에 요셉은 불현듯 돌아가신 어머니 라헬을 떠올리고 7일 동안 크게 애통하며 호곡하였습니다. 요셉이 여섯 살 때 외할아버지 리반의 집(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던 도중에 에브랏(베들레헤)에서 어머니 라헬이 동생 베나민을 낳던 중 난산 끝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가나안 땅에 아버지의 영구를 옮긴 다음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지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과 상여 뒤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쩌면 요셉은 우리가 미워 우리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앙갚음할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요셉에게 전갈을 보냈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

부고(訃告)를 접하고 조카들에게 부탁하기를, '야곱의 상여행렬이 애덤을 경유하기를 원하며 동생 야곱을 위해 배움을 입고 곡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으리라. 그 제단이 받아들여져 장례행렬의 코스는 애덤을 지나게 되었고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 사는 모압과 암몬 땅을 경유하게 된 것이다.

요셉의 형제(레아가 낳은 이복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버지께서는 세상 떠나시기 전에 당신의 말씀을 요셉에게 전하라 하시면서 ‘형들이 악의로 한 일인건 어떻게 마음을 잘못 먹고 한 일인건 너에게 품을 일을 저질렀지만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들,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가 지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지택에서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습니다.

골이여 고센에 거하는 요셉의 형들은 멤피스에 있는 요셉의 지택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하고 말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더라도 하겠습니까?”하고 말하고 또 간곡한 말로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들과 형들의 어린 자식들을 돌봐드리겠습니다.”하고 위로하였습니다.*

안젤라